



효성그룹,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효성그룹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돌봄 분야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효성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중앙회에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중·장년 여성을 위한 요양보호사와 시니어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에 쓰인다. /효성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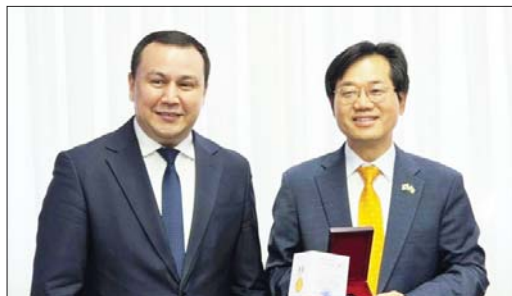
신한금융, 한일 기후금융 협력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전환경금융과 탄소시장,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이 주관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신한금융그룹



NH농협은행, 폐전자제품 모아 자원순환 실천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내(NH) 사람 속 자원순환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폐전기·전자제품을 자발적으로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NH농협은행



KCL 천영길 원장, 우즈베크 대통령 훈장 수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천영길 원장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KCL은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대통령 훈장 수훈과 함께 우즈베크 내각 산하 기술규제청(UATR)과 '재생에너지 설비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CL

인사 ◆메트로미디어◇전보 △편집국 건설부 동산부 차장대우 이현진
◆구미시◇4급 승진 △문화체육관광국 박향목◇5급 승진 △회계과 박미라 △민원봉사과 윤선목
◆CBS△장관순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박종관 콘텐츠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김중호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책부장

부음 ▲조학순(향년 91세)씨 별세, 강희정(방송작가)씨 모친상, 권철철(경인방송 전 회장)씨 장모상 = 29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2-890-3180

이재용·최태원·젠슨 황, 뉴욕서 'AI 동맹' 재확인

벤 플리트상 행사서 두 달 만에 재회
삼성·SK, 엔비디아와 AI 협력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두 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 AI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SK의 수장이 뉴욕에서 AI 동맹을 재확인했다.

아들이 만난 장소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티어 연례 갈라 행사였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젠슨 황 CEO가 2026년 벤 플리트상을 수상하자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직접 축하에 나섰다.

이 회장은 행사에서 황 CEO와 약 25년 전 CES에서 처음 만난 인연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함께하는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엔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28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는 삼성전자의 영상이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삼성전자

아가 모두 AI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양사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고(故) 이견희 삼성 선대회장이 20년 전 같은 상을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재치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자신과 황 CEO의 공통점으로 AI, 두 사람의 딸 이름이 '매디슨'이라는 점에 이어 "우리 모두 갤럭시 Z 폴드8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황 CEO의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는 영상을 송출하며 별도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은 젠슨 황 CEO를 상징하는 'Pioneer(개척자)', 'Architect(설계자)', 'Builder(건설자)', 'Friend(친구)'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의 주요 활동과 업적을 역동적으로 소개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가상의 전시 공간을 배경으로 젠슨 황 CEO의 주

'청렴골든벨'로 윤리의식 제고

소진공, 임직원 30명 결선 진출
사례 중심 퀴즈로 부패 리스크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3회 'SE MAS 도전! 청렴골든벨' 결승전을 열고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나섰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청렴골든벨은 기존 주입식 법령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서바이벌 퀴즈 프로그램 형식으로 기획했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문항을 출제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대회는 예선·본선·결선으로 3단계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 직원의 예선을 거쳐 부서 및 지역 본부 대표로 선발된 최종 30명이 결선에 올라 치열한 퀴즈 대결을 펼쳤다.

특히 임원진의 적극적인 출전수범이 눈길을 끌었다. 본부 임원들이 직접 결선전에 참여한 가운데 인태용 부이사장과 김유오 상임이사는 국가청렴관의 교육원의 '청렴 내부강사 자격'을 사전 취득한 후 출전에 마지막 문제까지 맞히며 청렴 리더십을 보였다.

결선에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윤리규범 관련 총 15문항이 출제됐다. 접전 끝에 선정된 최후의 3인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함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돌아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골든벨을 통해 전 직원이 일상 업무 속 부패 리스크를 재인식하고 자율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립공원 '명품 탐방해설' 내달 무료 개방

전국 16개 국립공원 22개 프로그램
생태탐사·이색문화 체험 등 운영

국립공원의 고유한 자연 자원과 독창적인 체험을 결합한 고품격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10월 한 달간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16개 국립공원사무소와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 명품 탐방해설 22선'을 10월 한 달 동안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상시 생태탐방원의 해설 프로그램은 1인당 교육비 5500원~1만1000원으로 유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 위주의 탐방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생태 체험과 치유를 추구하는 탐방객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생태·탐사(8개) ▲치유·회복(9개) ▲이색·문화(5개)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치악산사무소 변금숙 해설사의 '초록 위로: 숲, 마음을 쉬게 하다' 프로그램. /국립공원공단

'생태·탐사형'에서는 한려해상에서 어미와 새끼 멸종위기종을 관찰하는 '야생 상괘이 탐사' 등이 운영된다.

'치유·회복형'은 치악산 초록위로: 숲, 마음을 쉬게 하다' 등 숲과 계곡을 활용해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색·문화형'에서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지리산 수어 해설 및 생태·산악 안전 체험, 정음 전통 특산품을 활용한 내장산의 '불멸의 쌍화차' 등이 눈길을 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에몬스, 전도연과 18년 동행 '프로모션'

소파·침대 대표제품 특별가
전국 매장서 11월 30일까지

에몬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전속모델 배우 전도연 주연작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18년 동행 축하 페스타'를 연다.

29일 에몬스에 따르면 회사와 전도연의 인연은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서 한 브랜드와 모델이 18년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것은 국내 가구 업계는 물론 대한민국 광고계 전체에서도 극히 드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에몬스X전도연 19년 동행 감사페스타.

이번 프로모션에선 올해 최신 TV C F '좋은 휴식은 에몬스롭게'에 등장한 전도연의 시그니처 소파 및 프리미엄 침대, 매트리스 등 대표 가구 라인업을 특별 혜택가로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농심 '신라면 로제', 유럽시장 첫선

세계 식품박람회 '시알' 참가

농심이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 '시알 파리 2026(SIAL Paris 2026)'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알 파리는 1964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글로벌 식품 전문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과 유통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

여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 식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는 자리다.

농심은 이번 박람회에서 신라면의 글로벌 슬로건 'Spicy Happiness In Noodles'를 테마로 신라면 부스를 운영한다. 박람회장 6홀 한국식품산업협회 선도기업관에 실내 부스를 차리고 '신라면 로제'를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61주년 연고전, 내달 2일 잠실서 개막

이틀간 잠실·목동서 5개 종목 열전

고려대와 연세대가 서울 잠실과 목동 일대에서 61주년 정기전을 개최한다. 고려대는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2026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 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려대가 주최하는 올해 연고전은 2일 오전 10시 잠실야구장에서 개막식을 시

작으로 막이 오른다.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고, 오후 3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농구 경기가 이어진다. 오후 5시에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된다.

3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럭비에 이어 오후 2시 축구 경기를 끝으로 정기전 일정이 마무리된다. /김수정 기자 krsyul@